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3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직선 4기 남은 1년 전남교육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시민·생태환경교육 K-교육 모델 완성하겠다

김대중 도교육감, 취임 3주년 기념 성과·계획 발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글로컬 전남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3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곳이며, 이제는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지역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 등 남은 1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핵심 전략으로 내놓았다.

도 교육청은 이에 발맞춰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확대,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편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과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핵심전략이 전남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발맞춘 교육 여건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지역대학의 역할 확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또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남형 작은학교 모델 도입 등 학교마다 차별화한 교육 경쟁력을 구축한다.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지역 산업 인력을 키우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직업교육특화 모델로 키우고, 기술·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체계도 강화한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연장선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2025 전남교육 작은 박람회'를 열고, 글로컬 교육콘퍼런스·2030수업축제·전남교육 성과나눔 등도 선보일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발생 빈도가 높은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 지원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 체계 정비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폐쇄회로(CC)TV 운영 등 학교 부담이 컸던 23건의 행정업무를 각 시군에 설치한 학교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본청 조직을 감축해 재배치된 31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교육으로 지역의 희망이 살아난다면,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으로 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8명 추가…총 5908명

환경부는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48명을 피해자로 새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908명으로 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35명의 피해 등급도 결정했다.

한편,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 지난 3월 공개한 '호남&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360명(광주192명·전남168명)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법)의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104명(28.8%)이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기 못 편 장마

올 장마 왜 이렇게 빨리 끝났나

지난달 20일 시작 12일만에 끝나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짧아
온난화 해수면 온도 상승도 영향

광주·전남에서 장마가 이례적으로 빨리 끝났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장마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잠정 종료됐다.

이번 장마는 지난달 20일에 시작돼 12일 만에 끝난 것으로, 기간으로 보면 평년(31.4일)에 비해 19일 짧았다. 장마 종료일(7월 24일)도 평년보다 23일이나 이른 시점이다.

이번 장마 기간은 광주·전남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6일)이래 두 번째로 짧았다. 장마 기간 중 광주·전남 강수 일수는 4.6일에 불과했으며, 누적 강수량도 55.7㎜로 많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북쪽으로 넓게 세력을 확장했고, 이 때문에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거나 세력을 넓히지 못한 채 한반도 북서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국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대만 지역 부근의 대류활동이 강화됐는데, 이로 인해 상승한 공기가 우리나라 부근에 가라앉는 흐름을 보였다. 이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결국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과거에 비해 장마는 일찍 끝나고, 폭염이 일찍 찾아왔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강화된 데는 지구 온난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기후 전문가들 해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 유무와 기후학적 요소 등을 고려해 추후 재분석될 경우 장마 종료일이 바뀔 수 있다"며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온열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폭염 가르며 시원한 질주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3일 나주시 다시면 나주호 수상레포츠장에서 시민들이 수상 튜브에 몸을 맡긴 채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무더위 쉼터' 9254곳 운영

연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할 '무더위 쉼터'가 전국 6만 7000여곳에서 운영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영중인 무더위 쉼터는 6만 7459곳이다. 1년 전(5만 9000여곳)보다 약 14% 늘었다.

무더위 쉼터는 누구나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로 올해 9월까지 가동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까운 쉼터의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가 9745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9254곳), 경남(8994곳), 경북(6543곳), 충남(6392곳), 전북(603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의대교수들 "학생·전공의 복귀 준비에 최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 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대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대교수협은 "국가에서도 이들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사항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 시스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의대교수협은 "빠른 시간 내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 실무 차관도 이른 시일 내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새로운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 등 전 의료계가 다 함께 힘을 합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체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